

2010. 6. 21 제241호

# 세계도시동향

# 세계도시동향

2010. 6. 21 제241호

## 문화·디자인

1. 문화교육 프로젝트 ‘학생마다 악기 하나씩’ 시행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 산업·경제

2. 인재육성 시스템인 ‘직무능력표준’ 가이드라인 작성 (도쿄)
3. ‘세계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경제 발전과 문화·창의 산업 육성 추진 (북경)

## 건강·복지

4. 저소득 고령자를 위해 ‘도시형 저가 양로원’ 정비사업 지원 (도쿄)

## 행정·재정

5. 주요 도시정보 다국어 서비스 시행 (뉴욕)

---

## 도시환경

6. 특성화된 기후변화 대응계획 제시 (뉴욕)
7. 녹화벽 설치 효과에 대한 논쟁 (런던)
8. 태양에너지 활용시설을 보여주는 '솔라 맵' 작성 (샌프란시스코)
9. 유연한 공공녹지계획 수립을 위해 시민 설문조사 실시 (베를린)

## 도시계획 · 주택

10. 보행과 자전거 이용 촉진을 위해 그린웨이 조성 (런던)
  11. '녹색산업지구'를 조성해 저탄소 배출기술 개발 추진 (런던)
-

## 문 화 · 디 자 인

### 1. 문화교육 프로젝트 ‘학생마다 악기 하나씩’ 시행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 있는 루어 지방은 ‘학생마다 악기 하나씩’이라는 문화교육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음. 이는 초등학생이 악기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공교육 프로그램으로 ‘루어: 2010년 유럽 문화도시’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임.
  - 유럽 문화도시 프로젝트는 유럽연합 문화도시 정책으로 1999년부터 심사단이 매년 유럽의 한 도시나 지역을 선발하여 ‘유럽 문화도시’라는 명칭을 수여하고, 그 도시의 예술과 문화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임.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 속한 루어 지방은 보쿰, 도르트문트, 에센과 같은 대도시와 중소도시 50여 개가 모여 있는 지역으로 19세기부터 독일 산업화를 이끌었던 석탄 및 철강 산업의 중심지였음.
    -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새로운 모색이 필요했던 루어 지방은 문화도시로의 변화를 추구하여 현대적인 문화예술 지역으로 탈바꿈하는데 성공함.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2010년 유럽 문화도시’로 선정됨. 2010년 한 해 동안 도시건축, 연극, 음악, 미술, 문학, 창조경제, 도시축제 분야에서 문화예술 프로젝트와 행사 250여 건이 루어 지방 전역에서 진행됨.
  - ‘학생마다 악기 하나씩’ 프로젝트는 처음에는 보쿰시가 단독으로 추진

하였으나 이후 루어 지방 전역으로 확대 실시됨. 이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인식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와 연방 문화재단이 3주 소재 전체 초등학교 900개교에서 이 프로젝트가 시행되도록 예산을 지원함.

- 학생이 선택한 악기가 학교에 비치되면 학생은 음악수업 외에 각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시립 음악학원에서도 악기를 배울 수 있음. 악기 강습은 음악의 기본요소와 연주방법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놀이처럼 진행됨.
  - 초등학교 1학년은 악기를 학교나 학원에 두고 다니도록 하고 2학년부터는 악기를 집에 들고 가서 연습할 수 있도록 함. 학생 가정 이 속한 계층 및 출신, 악기 선호도 등을 고려해 바이올린이나 플루트 같은 클래식 악기 외에도 호른, 만돌린, 터키 민속악기 강습도 진행됨.
  - 악기를 하나씩 선택해 강습을 받은 초등학생은 2010년에는 ‘유럽 문화도시’ 행사의 일환으로 계획된 콘서트에서 연주를 하는 기회를 얻음. 이는 어린 학생이 일찍 무대에 서보는 소중한 경험이 됨.
- 이 프로젝트는 문화예술 진흥과 관광 촉진 효과를 위해 행사기간에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학생들이 일찍 음악을 만날 수 있도록 해 주고 창조적인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임. 이러한 의미에서 연방 문화부는 이 프로젝트를 문화교육 분야에서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프로젝트로 평가함.

([www.kultur.nrw.de/de/jedem\\_kind\\_ein\\_instrument.html](http://www.kultur.nrw.de/de/jedem_kind_ein_instrument.html))

([www.essen-fuer-das-ruhrgebiet.ruhr2010.de/programm/musik-leben/jedem-kind-ein-instrument.html](http://www.essen-fuer-das-ruhrgebiet.ruhr2010.de/programm/musik-leben/jedem-kind-ein-instrument.html))

## 산 업 · 경 제

### 2. 인재육성 시스템인 '직무능력표준' 가이드라인 작성 (도쿄)

- 도쿄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지원과 함께 산업계 요구에 맞는 인재를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시스템이 필요함. 이에 도쿄都는 '도쿄 산업인재와 아시아의 미래를 개척하는 인재 육성' 시책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도쿄판 직무능력표준(Skill Standard)'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2010년 6월 직무능력표준 가이드라인을 작성함.
  - 직무능력표준이란 개인의 기술·지식수준을 항목별로 세분화하여 만든 기준임. 종래에는 이 기준이 업종·직종·회사별로 달라 인재의 역량을 평가하고 고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 이번에 직무능력의 구성항목과 평가방법을 통일함으로써 업계에서 이를 활용해 교육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都는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산업디자인 분야 직무능력표준'을 시범적으로 작성함. 산업디자인 분야는 都가 중점 지원하고 있는 도시형 창조산업의 하나로 전략적인 인재 육성시스템이 요구됨. 이 직무능력표준에서는 산업디자인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컨설팅 및 리서치, 기획 및 디자인, 설계 및 생산, 판촉 등)를 정의하고 그 직무에 필요한 기술·지식 등을 상세하게 정리함. 항목별 인재 역량 평가기준과 향후 인재 육성방안 등도 제안함.
    - 직무능력표준에 맞추어 인재를 개발함으로써 각 기업은 실무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타 업계 또는 해외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글로벌 인재를 보유한 기업으로 인정받게 됨.

또한 사원에게는 자신의 직무능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계기를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됨.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0/06/20k63200.htm](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0/06/20k63200.htm))

([www.jidpo.or.jp/activity/sstd.html](http://www.jidpo.or.jp/activity/sstd.html))

### 3. '세계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경제 발전과 문화·창의 산업 육성 추진 (북경)

- 제9회 북경市 도시 발전 포럼이 2010년 5월 25일 개최됨. 이 포럼에는 북경 시장을 비롯해 세계적인 기업가 출신 15명이 포럼 고문으로 참석해 의견을 개진함. 기업 혁신 분야에서 큰 실적을 거두고 세계적인 안목이 있는 이들은 북경市가 목표로 정한 '세계적인 도시'에 거의 근접했다고 평가함.
  - 세계적인 도시에 근접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주요 지표치가 이러한 평가를 뒷받침함. 우선 북경 경제 성장률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임. 세계적인 컨설팅 그룹인 매킨지 CEO는 현재 북경 GDP가 세계 대도시 가운데 24위를 차지한다고 밝힘. 1인당 GDP는 현재 7만 7000위안(약 1370만 원)에서 2030년 28만 위안(약 4980만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는데, 이는 도쿄와 비교해 겨우 5만 6000위안(약 996만 원) 차이임. 지난 20년간 북경 GDP 연평균 성장률이 13%에 달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측함.
  - 세계를 선도하고 변화시키는 영향력 측면에서도 북경은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음. 미국의 한 기관이 발표한 '세계도시 평가지수'에 따르면

북경의 정치적 영향력은 세계 7위를 기록했고 영향력 분야 도시 종합 순위도 12위를 차지함.

- 포럼에 참석한 한 CEO는 향후 20년을 전망해보면 북경은 크게 2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함. 하나는 새롭게 늘어나는 수백만 명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도시를 지속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학교, 병원, 도로, 대중교통망 등 필수적인 공공시설 건설과 보수에 힘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하는 것임.
- 일본의 유명한 CEO는 세계적인 도시로서 풍부한 매력을 갖기 위해서는 문화산업 육성도 필요하다고 지적함. 문화는 도시 활력과 매력의 원천이므로 문화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대도시로서 지위와 역사·전통에 부응하는 문화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이와 관련해 市는 최근 문화·창의 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우대 정책을 내놓음. 북경의 문화·창의 산업, 금융, 부동산 등 전문 서비스 분야 취업비율은 이미 세계적인 도시와 견줄 만함. 매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이 영역에서의 취업비율은 39%이며 이는 뉴욕보다 6%가 높은 수치임.
  - 2009년도 문화·창의 산업이 북경 경제에 미친 공헌도는 13%까지 늘어났는데, 이는 2008년보다 10% 증가한 수치임. 미국의 저명한 CEO는 북경에 영화사와 출판사, 공연단체 등이 많고 문화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문화산업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함.
  - ABB社 CEO는 문화·창의 산업이 북경 전체 산업 발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관광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함. '런던의 경우 매년 해외 여행객 1500만 명과 국내 여행객 1000만 명이



방문하는데 이 중 70%가 문화 자원 때문에 방문하는 것'이라는 조사결과를 인용하면서 문화·창의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함.

(北京日报, 2010. 5. 27)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인터넷사이트 개설 계획 (베를린)**

- 베를린市는 2010년 6월 10~11일 세계 기후 리더십 그룹 워크숍을 '고도로 효율적인 도시를 위한 전략'이란 주제로 개최함. 이번 워크숍에서는 전 세계 40개 도시에서 150명이 참가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을 공동 모색함.
- 市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市청사 지붕에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한 것을 기념하는 행사도 개최함. 태양열 집열판의 설치로 市는 연간 36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3톤 줄일 수 있음.
- 市는 세계 기후 리더십 그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국내·외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개설해 전 세계 도시와 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이 사이트가 에너지효율이 높은 기술과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녹색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10/06/10/298743/index.html](http://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10/06/10/298743/index.html))

## 건 강 · 복 지

### 4. 저소득 고령자를 위해 ‘도시형 저가 양로원’ 정비사업 지원 (도쿄)

- 도쿄都는 도시지역 저소득 고령자 대책의 일환으로 2010년부터 ‘도시형 저가 양로원’ 정비 지원사업을 벌이기로 함. 都는 현재 고령자를 위해 의료 지원 노인복지시설, 일반·시각장애인용 양로원, 노인복지센터 등 다양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음. 도시형 저가 양로원은 소득이 적고 돌봐줄 가족이나 친척이 없으며 혼자서 생활하기 힘든 고령자를 위해 만든 노인복지시설임.
  - 都는 ‘저가 양로원 설비와 운영에 관한 기준’을 사회복지법에 근거해 2010년 4월 1일 개정하여 도시형 저가 양로원 기준을 새로 정한 바 있음. 입소인원 기준을 기존 20명 이상에서 20명 이하로, 개인실 규모는 21.6㎡ 이상에서 7.43㎡ 이상으로 낮추고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용시설 목록(식당, 화장실, 욕실, 숙직실 등)에서 회의실, 상담실 등을 제외하는 등 시설 기준을 전반적으로 완화함.
  - 都는 총 10억 3600만 엔(약 138억 원)을 들여 도시형 저가 양로원 정비사업을 보조하기로 함. 양로원을 새로 건립하는 경우 수용가능 인원 1인 기준으로 300만 엔(약 3990만 원), 기존 양로원을 개·보수할 경우 210만 엔(약 2800만 원)을 지원함.
    - 예를 들어 월 이용료가 10만 4000엔(약 138만 원)이고 정원이 10명인 저가 양로원을 새로 건립할 경우 3000만 엔(약 3억 99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음. 都는 2010년 6월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모집 중임.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0/05/20k5o400.htm](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0/05/20k5o400.htm))

## 행 정 · 재 정

### 5. 주요 도시정보 다국어 서비스 시행 (뉴욕)

- 뉴욕市는 점점 증가하는 외국인과 외국계 내국인을 위하여 도시정부 주요 문서를 다국어로 번역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행함. 뉴욕 인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스페인계, 중국계, 러시아계 등을 위해 홈페이지나 주요 문서에 대해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함.
  - 市는 2008년부터 다국어 서비스를 시행하여 17개 이상 공공기관에서 160개 이상 문서를 4개 이상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하고 있음. 뉴욕에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인구수가 180만 명을 넘어섬에 따라 현재 市 이민국이나 정보통신국 등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6개 이상 언어 사용이 불가피해진 상황임.
  - 市는 “어디에서 태어났든, 어떤 언어를 쓰는 도시행정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하고 누구나 쉽게 도시정부와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함. 市 홈페이지에서도 영어 사용이 불편한 시민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함.
    - 특히 구직,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 건강보험, 보행자 안전, 보육 정보는 물론 지역별로 다양한 정보를 市 해당 부서를 통하지 않고도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함.
    - 다국어로 번역된 정보는 주제별로 분류되어 검색하기 용이하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정보는 해당 지역 관공서나 관공서 홈페이지에서 쉽게 접할 수 있음. 번역작업에 드는 비용은 민간 재단에서 상당 부분 지원함.

- 市는 앞으로도 가능한 한 모든 시정 정보를 다양한 언어로 제공할 계획임. 이는 언어장벽으로 인한 도시정부와 시민 간의 벽을 허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www.nyc.gov/portal/site/nycgov/menuitem.c0935b9a57bb4ef3daf2f1c701c789a0/index.jsp?pagelD=mayor\\_press\\_release&catID=1194&doc\\_name=http://www.nyc.gov/html/om/html/2010a/pr233-10.html&cc=unused1978&rc=1194&ndi=1](http://www.nyc.gov/portal/site/nycgov/menuitem.c0935b9a57bb4ef3daf2f1c701c789a0/index.jsp?pagelD=mayor_press_release&catID=1194&doc_name=http://www.nyc.gov/html/om/html/2010a/pr233-10.html&cc=unused1978&rc=1194&ndi=1))

#### 기업이 자전거 대여 프로그램과 자전거도로 건설 후원 (런던)

- 런던에 위치한 대형 은행들은 ‘런던 자전거 대여 계획’을 후원하기로 런던市와 약정함. 대표적인 사례가 세계적인 은행인 바클레이즈의 자전거 대여 및 자전거고속도로 건설 후원 프로그램임.
  - 자전거 대여 후원 프로그램은 바클레이즈가 6000대의 자전거를 제공하고 이 자전거를 자전거 보관소 400여 곳에 배치하는 사업임. 배치가 완료되면 도심 지역 자전거 이용률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자전거고속도로 건설 후원 프로그램은 도심과 市 외곽을 연결하는 방사형 자전거도로 12개를 건설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임. 우선 바킹, 타워 게이트웨이 지역 등을 연결하는 자전거고속도로가 2010년 7월 19일 개통됨. 나머지 자전거고속도로는 2015년 말까지 완공될 예정임.

([www.london.gov.uk/media/press\\_releases\\_mayoral/barclays-saddle-sponsor-london-cycle-hire-scheme](http://www.london.gov.uk/media/press_releases_mayoral/barclays-saddle-sponsor-london-cycle-hire-scheme))

## 도 시 환 경

### 6. 특성화된 기후변화 대응계획 제시 (뉴욕)

○ 뉴욕시 기후변화 위원회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위험 관리방법’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함. 이 보고서는 특성화된 기후변화 대응계획 즉, ① 기후변화 취약분야에 대한 정의, ② 기후변화 적응전략, ③ 기후변화에 대한 유연성 증진 프로그램 등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이 보고서에서 밝힌 기후변화에 대한 주요 대응방안은 ① 위험 관리 차원에서의 기후변화 대응책 수용, ② 기후변화 관련 전문가의 실시간 조연과 제안 수용, ③ 지속적인 기후변화 영향 모니터링, ④ 민관 협력으로 다양한 계획 수립, ⑤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사와 협력, ⑥ 단·중·장기 전략계획을 수립하되 단기계획에 집중하여 복합적인 목표 실현 등임.

- 기후변화 위원회는 기후문제에 대한 도시정부 노력에 발맞추어 이번 보고서 내용을 포함한 지침서 3권을 발간하여 기후변화 위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 이 지침서에 기초하여 도시정부와 공공기관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2009년 2월 첫 번째 공식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는 기후변화 위원회는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뉴욕시립대학교와 함께 과학적으로 실현가능한 대응방법과 그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주로 개발하며 록펠러 재단의 기금으로 운영됨.

([http://nysbar.com/blogs/environmental/2010/06/new\\_york\\_city\\_panel\\_on\\_climate\\_1.html](http://nysbar.com/blogs/environmental/2010/06/new_york_city_panel_on_climate_1.html))

## 7. 녹화벽 설치 효과에 대한 논쟁 (런던)

○ 기후변화와 도시열섬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물 녹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런던의 한 자치구에 설치된 녹화벽(Living Wall)의 효과를 두고 논쟁이 벌어짐. 이슬링턴區가 2005년 설치한 녹화벽(사진 참조)에서 자라는 식물이 말라죽자 2009년 녹화벽을 새롭게 설치하기로 하자 운영비용 대비 효과에 대해 의견이 분분함.

- 2005년 식물 12종으로 구성된 녹화벽에 설치된 급수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식물이 고사하는 결과를 낳음. 녹화벽의 설치비용은 13만 파운드(약 2억 3230만 원)이고 매년 추가로 들어가는 유지비용은 연간 6000파운드(약 1072만 원)임. 여기에 새로 만드는 녹화벽에는 3만 파운드(약 5360만 원)를 더 들여 급수장비를 원격 점검하거나 모니터링하는 장치를 설치하기로 함. 이에 지역 언론 등이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을 내놓으면서 논쟁이 시작됨.

· 區는 녹화벽이 녹지공간 확충과 열섬현상 완화뿐 아니라 개, 나비, 벌, 곤충 서식지 역할을 하여 도시 생태계를 더욱 건강하게 하는데 기여한다고 주장함. 여기에 대해 일부 생태학자와 정치인, 언론 등은 1차 녹화벽보다 초기 설치비용과 유지비용이 더 들어가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오히려 더 늘어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업을 '친환경을 가장한 에너지 낭비 사례'라고 비판함.

· 區는 런던에서 가장 큰 녹화벽이라는 상징성 때문이라도 예산을 투입해 성공사례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함. 대다수 전문가들도 사업 시행 초기 단계인 만큼 실패사례에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음. 다만 녹화벽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살아

있는 식물을 담는 만큼 조경, 식생, 건물과의 조화, 급수 관리 등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함.



런던 Holloway Centre에 설치한 녹화벽의 식물이 말라죽은 모습

([www.biotope.com](http://www.biotope.com))

([www.architectsjournal.co.uk/news/daily-news/the-paradise-park-fallout-area-living-walls-worth-it/5208251.article](http://www.architectsjournal.co.uk/news/daily-news/the-paradise-park-fallout-area-living-walls-worth-it/5208251.article))

## 8. 태양에너지 활용시설을 보여주는 ‘솔라 맵’ 작성 (샌프란시스코)

○ 미국 샌프란시스코市는 ‘CH2M Hill’이라는 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도시공간에 분포하는 태양에너지 활용시설 현황을 지도로 보여주는 ‘솔라 맵’(Solar Map)을 작성함. 이는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 이상 저감하려는 도시정부 차원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책임.

- 市 환경국은 재생에너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1970년대부터 주민, 사업자, 도시정부기관 등이 태양에너지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지원해 왔음. 2000년대 후반부터는 솔라 루프(Solar Roof, 지붕형 태양광 발전설비) 1만 개를 2010년까지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왔음.

- 市는 시민과 사업자를 위해 전용 홈페이지(sf.solarmap.org)를 개설해 솔라 맵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태양에너지 활용시설 현황을 모니터링하거나 개별 건물과 산업시설에서 자족적인 에너지시스템을 갖추도록 지원함. 커뮤니티 차원 태양에너지 활용지침이나 정보, 인센티브 등도 알기 쉽게 제공함.

· 市는 연방정부로부터 솔라 맵 작성을 위한 예산을 지원받음. 이는 연방정부가 에너지 안보에 대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전역의 도시를 대상으로 ‘솔라 아메리카 시티 파트너십’을 구축하면서 가능해졌음.

(www.irecusa.org) (www.sfenvironment.org)



## 9. 유연한 공공녹지계획 수립을 위해 시민 설문조사 실시 (베를린)

- 베를린市 도시발전국은 2010년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한 달간 12개 자치구와 함께 도시녹지시설에 대한 시민 의견을 묻는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함. 공공녹지계획에서 중요한 것은 인구구조나 녹지 선호도 변화 등에 따른 유연한 계획 수립과 적절한 자금 투입임.
  - 베를린은 인구구조 측면에서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임. 어떤 지역은 지속적으로 고령화되고 있고 어떤 지역은 젊은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어떤 지역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녹지시설에 대한 주민 요구사항과 선호도도 달라지고 있음.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市는 3년마다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함.
  - 설문조사에서는 공공녹지시설을 ① 산책로 및 공원, ② 공원묘지, ③ 도로변 꽃밭, ④ 나무와 잔디로 조성된 놀이터, ⑤ 야외 체육시설, ⑥ 강변과 市 외곽 숲 등으로 분류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소, 장소별 방문빈도, 방문이유, 체류시간 등을 질문함.
    - 그밖에 ① 주거지나 베를린 전역에 있는 공공녹지시설에 대한 평가, ② 공공녹지에 위치한 카페나 음식점 중 선호하는 곳, ③ 선호하는 조경요소(벤치, 연못, 놀이시설, 조형물 등), ④ 녹지공간에서 열리는 행사에 대한 의견, ⑤ 주거지 선택 시 녹지 접근성 비중, ⑥ 공공녹지시설 관리에 대한 참여 여부 등을 물음.
    - 市는 市 홈페이지에 설문지를 올려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시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공원을 1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입장권 등을 제공하는 행사도 벌임. 이러한 설문조사는 독일에서 베

를린뿐 아니라 약 20개 도시에서 실시 중임.

([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archiv\\_volltext.shtml?arch\\_1005/nachricht3890.html](http://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archiv_volltext.shtml?arch_1005/nachricht3890.html))

#### 여름철 허리케인 정보 서비스 실시 (뉴욕)

- 뉴욕시 재난관리국은 여름철에 허리케인과 같은 해양성 폭풍 피해가 잦은 지역 주민을 위해 재해 발생 및 대처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함. 응급 상황 대비 및 피해 복구를 위한 계획 수립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도 실시함. 허리케인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도 확인할 수 있음.
- 시는 뉴욕에서 허리케인 등 자연 재해가 발생하면 다른 지역보다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밝히고 바람 강도가 74mph 이상일 경우에는 건물 파손, 수목 유실, 인명 피해 등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함.
- 특히 해안가 주변에 사는 경우에는 재해 대처방안을 숙지할 것을 권장함. 허리케인이나 태풍이 부는 경우에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시 재난관리국에서 제공하는 대처요령에 따라 행동하도록 유도함.

([www.nyc.gov/html/oem/html/ready/hurricane\\_guide.shtml](http://www.nyc.gov/html/oem/html/ready/hurricane_guide.shtml))

## 도시계획·주택

### 10. 보행과 자전거 이용 촉진을 위해 그린웨이 조성 (런던)

○ 런던市는 런던을 더욱 푸르게 하고 보행과 자전거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그린웨이(Greenway) 조성에 힘씀. 이 프로젝트는 ‘위대한 옥외공간 개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됨. 이용되지 않고 있는 철로를 보행로와 자전거도로로 바꾸고 수변과 묘지 주변을 녹지공간 등으로 새롭게 단장하는데 역점을 둬. 市는 현재 추진 중인 그린웨이 조성 프로젝트를 2010년 여름 완료할 예정임.

- 주요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① 헤이버링 지역에 보행로와 자전거도로(500m)를 조성하고, ② 첼시 지역에 있는 묘지 주변을 자전거도로(500m)로 조성하며, ③ 해링게이 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철로를 보행로와 자전거도로(3km)로 개조하고, ④ 킹스톤 지역에 자전거도로(300m)를 조성하며, ⑤ 이슬링턴 운하 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⑥ 첼시 지역 대운하 수변로(700m)를 개·보수함.
- 그린웨이 프로젝트는 이용되지 않고 버려진 도심 공간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으로 바꾸는 사업임. 친환경적인 그린웨이가 조성되면 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市는 보행과 자전거 이용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 자동차 통행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린웨이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중심이 되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함. 또한 앞으로 그린웨이를 다른 공원과 소규모 녹지, 숲과 연결할 계획이라고 밝힘.

([www.london.gov.uk/media/press\\_releases\\_mayoral/mayor's-funding-boost-capital's-greenways](http://www.london.gov.uk/media/press_releases_mayoral/mayor's-funding-boost-capital's-greenways))

## 11. '녹색산업지구'를 조성해 저탄소 배출기술 개발 추진 (런던)

○ 런던市는 최근 런던 동부지역에 새로운 랜드마크 건물, 전시공간, 콘퍼런스 센터 등을 2012년까지 건설하고 새로운 저탄소 배출기술을 개발하도록 하는 '녹색산업지구' 조성 계획을 발표함. 이용되지 않고 버려진 산업용지에 자본을 유치해 세계적인 수준의 저탄소 기술 개발 등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조성함으로써 일자리를 약 6000개 창출하고 런던에서 가장 침체된 지역 재생과 활성화를 모색할 예정임.

- 녹색산업지구는 런던 동부에 위치한 자치구인 해크니, 타워 햄릿, 뉴햄, 월턴 포리스트, 바킹 등에 걸쳐 있음. 지구 조성이 완성되면 쓰레기 처리와 재활용, 재생에너지 개발(바이오매스, 풍력, 태양열 등), 저탄소 대체연료 개발 분야 업체 등이 자리 잡게 되어 런던과 영국 전역에 저탄소 배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기관 네트워크가 구축될 전망이다. 市는 영국의 대표적인 지속가능한 기술 관련 센터로 자리매김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임.

· 친환경적인 디자인과 지속가능한 기술을 적용한 상징적인 건물도 건립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생 등이 첨단 저탄소 기술과 산업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센터로 활용할 예정임. 市는 이 센터를 찾는 방문객을 연간 10만 명으로 예상함.

· ① 가능한 한 자연광을 최대화하고, ② 외부 환경에 즉각 반응하는 창문과 에너지 효율이 높은 조명을 설치하며, ③ 건축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빗물을 이용하는 등 여러 친환경적인 방법을 이용해 건립함.

([www.london.gov.uk/media/press\\_releases\\_mayoral/mayor-unveils-%C2%A330m-plans-kick-start-london%E2%80%99s-%E2%80%98green-enterprise-district](http://www.london.gov.uk/media/press_releases_mayoral/mayor-unveils-%C2%A330m-plans-kick-start-london%E2%80%99s-%E2%80%98green-enterprise-district))

#### 삼림 정비 및 임업 재생사업 지원 (일본 오사카府)

- 최근 임업 불황으로 방치되는 삼림이 늘어남에 따라 일본 오사카府는 이러한 삼림을 재생하여 지구 온난화 방지, 저탄소 사회 실현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간벌(間伐) 지원사업을 실시하기로 함. 지원 대상은 시·읍·면, 삼림조합, 비영리기관 등이며, 2010년 6~7월 신청자를 모집해 대상을 선정할 계획임.
- 삼림을 정비하고 임업을 재생하기 위해서는 간벌 사업뿐 아니라 간벌재 재활용, 삼림 주변 도로망 정비, 삼림 병충해 관리 등 종합대책이 필요함. 오사카府는 간벌 사업에 대해서는 1만㎡당 최대 25만 엔(약 333만 원), 삼림 도로망 정비를 위해서는 2000엔(약 2만 7000원)에서 5만 엔(약 67만 원)까지 지원함. 또한 병충해 관리에 1㎡당 최대 4만 엔(약 53만 원), 활엽수림 등의 재생 및 관리에 1만㎡당 최대 50만 엔(약 666만 원)을 지원하기로 함.
- 사업비용 대비 효과 분석을 거쳐 경제성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 대상으로 선정함. 간벌 대상이 되는 지역은 오사카府가 지정한 지역 내에 있는 인공 숲이어야 하고 사업 실시 후 10년간 숲이 유지되어야 함.

([www.pref.osaka.jp/hodo/index.php?site=fumin&pageld=3889](http://www.pref.osaka.jp/hodo/index.php?site=fumin&pageld=3889))